

40년만에 다시 읽은 소설 「40년」

「朴魯甲전집」 간행에 부처

朴婉緒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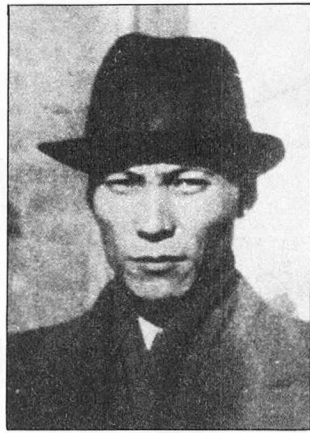
무명두루마기 입고 부임해온 국어선생님

박노갑선생님이 숙명여중에 부임해오신 건 1948년, 우리가 여중 5학년에 진급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입학할 때는 일제말기에 4년제 女高였던 게 해방 후 학제가 바뀌면서 중학교가 6년제로 되었으니까 지금 학제로 치면 고2에 해당되지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고2에 해당하는 시기인 중5때부터 앞으로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반을 이과반·문과반·가사과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 문과반이 된 문학소녀들에겐 소설가가 국어선생님으로 오신다는 건 소문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젊고 미남이고 피부는 약간 선명질적으로 창백하고, 교칙이나 기존의 도덕에 냉소적이며 홀로 자유롭고 어딘지 니힐한 데가 있는 사람일 것, 고작 그 정도가 당시 우리가 소설가 내지는 예술가에게 품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의 환상을 여지없이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은 젊지도 않으셨고 미남도 아니셨으며, 그 당시에도 희귀한 검정 무명두루마기를 입고 부임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문과반 담임이 되시었고, 국어·창작·고전 등 적지 않은 과목을 맡으셨지만 소위 인기있는 선생님은 못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쓰는 듯한 눈동자는 여학생다운 아양이나 허영, 위선 등에도 가차가 없으셔서, 남자 선생님 앞에선 몸을 비비꼬면서 적당히 둘러대면 웬만한 잘못은 귀엽게 봐주려니 여기고 싶은 우리의 기대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박노갑선생님에 의해 깨진 건 소설가에 대한 환상 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듣기 좋게 문학소녀라고 했습니다만, 문학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소설을 좀 읽었다고는 해도 달착지근한 일본의 연애소설류에 폭 빠져 있다가 해방을 맞았고, 해방후 좀 성숙해진 안목과 갈증으로 세계문학에 눈을 돌렸지만 역시 일본어 번역판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2때 해방이 되고 중3때 겨우 한글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불편이 없게 된 우리였으니까 우리 문학엔 맹문이었지요. 마땅한 읽을거리도 없었구요.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없는 문학취미는 그만큼 허황된 것일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일본소설류에 의해 눈뜬 문학에 대한 꿈은 우리말보다 훨씬 나긋나긋하다 못해 간사스럽기까지 한 일본어에의 현혹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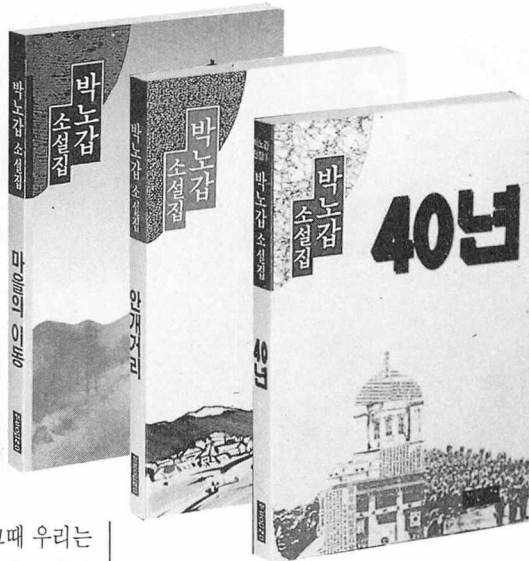
박노갑씨

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는 문학이라는 것을 미사여구, 감상의 과장과 미화 등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럴듯한 문장을 보면 외거나 베껴두었다가 써먹는 흉내내기도 유행했었지요.

평범하고 소심한 식민지시대 지식인 그려

그러나 그거야말로 바로 박노갑선생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또래의 소녀라면 그 시절이 아닌 요즘의 소녀라도 한번은 거저게 돼 있는 美文만들기의 유혹을 선생님은 엄격하게 경계하셨고, 감탄사를 몇 개라도 붙이고 싶은 감정의 과장에 대해선 혐오감을 드러내보시실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선생님의 문학관인 동시에 인간관이었지 않나 여겨집니다. 문장은 곧 사람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선생님의 장편 「40년」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읽어 주신 적도 있었는데 듣는 우리는 참 재미없는 소설이구나, 과연 문장이 곧 사람이란 소리는 맞는구나 하는 정도의 인상밖에 못받았던 듯합니다. 그래도 버젓하게 단행본으로 꾸며진 저서를 가진 선생님이 우리는 몹시 자랑스러웠고 몇몇 문학소녀들은 가벼운 흥분마저 느꼈더랬습니다.

책을 출판하기도 어려운 때였지만 학생이 교과서 외의 책 한권 사본다는 것은 그닥 쉽지 않은 곤궁한 시대였습니다. 마침 종로서관집 딸이 같은 문과반이어서 「40년」을 가져와 몇몇이서 앞을 다투어 둘러보았지만 역시 재미있는 소설은 아니었습니다. 황찬이란 주인공이 나라가 망해갈 무렵에 태어나서 식민지시대를 어떻게 살았나 하는 이야기인데, 성격이 특이한 것도, 생애가 파란만장한 것도 아닌 평범하고 소심한 지식인의 행적을, 꾸밈을 극도로



억제한 사실적이고 진솔한 문장으로 기록한 소설이 재미있을 리가 있나요.

이번에 선생님의 작품이 해금되어 '깊은샘'에서 세권의 전집으로 묶여나온 걸 대하니 감개가 무량한 중에도 「40년」이 특히 반가웠습니다. 꼭 40년만에 다시 햇빛을 본 선생님의 장편입니다. 「40년」이란 제목은 주인공이 태어난 1905년부터 해방되던 해까지의 40년 동안 일컬을 게 뻔한데도, 혹시나 선생님은 그때 이미 당신의 작품이 앞으로 40년 동안 잠자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신게 아니었을까 하는 신비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9세에 다시 읽은 「40년」은 19세 때처럼 재미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더군다나 친일파는 친일파 나름으로, 애국지사나 독립운동가는 또 그들 나름으로 일제시대를 다루어 극적으로 과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홀로 겪은 바를 보태지도 덜지도 꾸미지도 않고 흥분하거나 냉소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최학씨가 작품해설을 하면서 인용한 이재선씨의 다음과 같은 지적엔 저도 아아, 바로 이거였구나 고개를 깊이 주억거렸습니다.

“「40년」만큼 일제시대의 상황과 그 속에서 삶의 모습을 결산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소설 자체로서보다도 식민지치하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의 소설적 양식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열아홉살 때는 하나도 재미있는 줄 모르고 읽었는데, 선아홉인 지금 가슴에 몽클하게 와닿는 대목 중의 하나는 주인공이 손수 물지게 지는 애깁니다. 선생님도 아마 물지게를

지셨을 겁니다. 황찬은 바로 선생님 얘기였군요. 저는 선생님의 물지게를 이 눈으로 푹푹히 본 걸요.

한 班에서 다섯명의 소설가·시인 나와

졸업을 하고나서 며칠 있다가 저는 韓末淑하고 같이 선생님댁을 찾아뵈는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가 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峴底洞이라는 산동네였는데, 선생님댁은 그 동네에서도 꼭대기에 가까운 비탈에 제비집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오막살이였습니다. 한번도 선생님이 부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어렵게 사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들은 정갈하고 사모님은 기품 있으셨습니다. 지금이야 고지대는 수압이 낮거나 밤에만 급수가 되어서 불편하지만 그때만 해도 산동네 집엔 아예 수도꼭지도 없을 때였습니다. 부엌 기둥에 물지게가 의젓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물지게를 누가 지었겠습니까. 오남매나 되는 자녀는 다 어리니 물지게를 지고 그 가파른 비탈길을 오를 수 있는 장정식구는 선생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말숙이하고 저는 어찌 그리 소견이 좁았던지 선생님 뵈러가면서 시간다는 게 겨우 꽃 한다발이었습니. 선생님은 마침 출타중이셨고, 사모님은 꽃병이 없다며 장독대에서 조그만 오지 향아리를 갖다가 그걸 꽃으셨습니다.

그때 마당에선 다섯살쯤되는 눈이 큰 사내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사십이 넘은 장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40년 전의 선생님을 꼭 빼닮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처럼 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문학에 뜻을 둔 박정재씨가 바로 그입니다. 이번에 「박노갑전집」이 나온 것도 그의 공이 큼니다. 제자들은 그저 둘러리만 썼지요. 그래도 이번엔 제자들이 모여보니 소설가가 셋(박완서·한말숙·김중숙), 시인이 둘(김양식·박명성)이나 되었습니다. 50명 한반에서 다섯명이 나 문인이 난다는 건 창작만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의 문예창작과라 해도 흔치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세권의 전집과 함께 선생님의 제자농사도 대견히 여기소서.

저희들은 40년 동안 0자 뒤에 가렸던 선생님 성함을 온전하게 떼뗄하게 부를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해서 그간의 억울하고 절절한 사연은 잠시 접어두고자 합니다.